

■ 특특뉴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DX12' 출시

현대중공업그룹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인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출력과 연료 효율을 기존 제품보다 향상시킨 친환경 전자식 선박 엔진 'DX12'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DX12 모델은 11.1t 배기량으로 최고 550마력의 출력을 내며 주로 어선 등 중소형 선박에 탑재된다.

이번 제품은 연료를 고압으로 공급·분사하는 커먼레일 시스템을 갖춰 기존 기계식 엔진 대비 출력과 연료 효율이 각각 10%, 5% 이상 향상됐다. 또 엔진 기관실이 협소한 중소형 선박 환경을 고려해 경쟁사 대비 엔진 사이즈를 작게 설계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올 추석 기업 72.3% 5일간 쉰다

경총 5인 이상 544곳 조사

상여금 지급 계획 61.8%

경기 작년과 비슷 47.3%

올해 추석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의 72.3%가 5일간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전국 5인 이상 544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1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8.2%가 올해 추석 연휴에 휴무를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이중 토요일(18일), 일요일(19일)에 이어 추석 공휴일 3일(20~22일)을 연달아 쉬는 '5일 휴무'가 72.3%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6일 이상'이 13.1%, '3일 이하'가 7.5%, '4일 휴무'는 7.1% 순으로 조사됐다.

'4일 이하' 쉰다고 응답한 기업은

14.6%로 드러났다. 낮은 휴무일 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나 납기 기한 준수 등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 52.9%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4일 이하' 휴무 기업은 14.6%로 나타났다는데, 그 이유로는 '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나, 납기 준수 등 근무가 불가피해서' (52.9%)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6일 이상' 쉰다고 응답한 13.1%의 기업은 긴 휴무일의 이유를 '일감이나 비

용 문제보다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 우선'을 69.4%로 가장 많이 꼽았다.

추석상여금과 관련,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61.8%로 지난해(62.9%) 대비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상여금 지급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급방식에 대한 설문에서는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답변이 70.3%로 가장 많았고, '별도 상여금 지급'이

25.2%, '정기상여금과 별도 상여금 동시 지급'이 4.6% 순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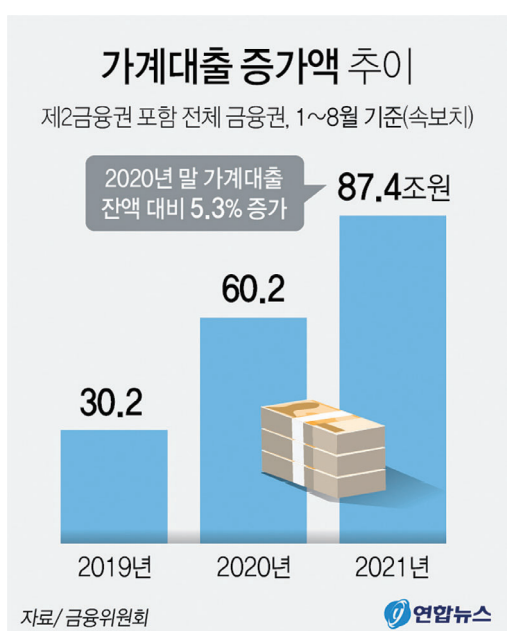
한편 응답 기업의 47.3%는 올해 추석 경기가 지난해 추석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38.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개선했다'는 응답은 14.0%에 불과했다.

추석 경기 개선과 관련, 규모별로 '개선했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이 30.6%로 300인 미만 기업의 11.0%보다 19.6%p 높게 나타났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300인 미만 기업이 41.3%로 300인 이상 기업 24.7%보다 16.6%p 높게 나타났다.

/오지현 기자

■ 그래픽 경제



가계대출, 작년 말보다 5.3% 증가

폭증한 가계대출이 집값 전·월세를 밀어 올리고, 오른 집값 전월세가 다시 대출 규모를 키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8월까지 87조 4,000억원 증가해 작년 같은 기간 증가폭(60조 2,000억원)을 훌쩍 상회했다.

작년 말의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1,630조 2,000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5.3% 증가했다.

8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증가액이 8조 5,000억원으로 전월(15조 3,000억원)이나 작년 8월(14조 3,000억원)보다는 확연하게 둔화했다.



대우위니아그룹은 최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포교육장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기부금 1억 2,140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 /대우위니아그룹 제공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도움됐으면”

대우위니아그룹 사회공헌 활동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지정 기탁

대우위니아그룹은 '힘내세요! 소상공인' 상생 나눔 기부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우위니아그룹은 최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포교육장에서 김상국 대우몽베르컨트리클럽 대표와 허영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

금 1억2,140만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정 기탁했다.

이번 상생 나눔 기부금은 '대우위니아 MBN 여자오픈' 대회 주최사인 대우위니아그룹이 사회공헌 기금 마련을 위해 기탁한 1억원과 위니아 프렌치존과 희망의 버디홀로 구성된 선수 참여 사회공헌 이벤트 적립금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시설 소상공인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상국 대우몽베르컨트리클럽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업계 종사자들

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다”며 “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마련된 적립금이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난 해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위니아그룹은 이번 이벤트 외에 코로나19 대응 방역 마스크 기증과 유기동물 사랑 나눔 후원, 학교 밖 청소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도 감지 후원행사와 희망 나눔 캠페인 참여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서미애 기자



농협전남본부는 13일 화순군청 앞 광장에서 '이웃사랑 축산물 행복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전남농협, 축산물 행복나눔 실천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와 새나눔축산운동본부, 화순축협(조합장 정삼자), 화순군지부(지부장 류종필), ㈜인백팜(대표 조무현)은 13일 화순군청 앞 광장에서 '이웃사랑 축산물 행복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이웃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농협과 화순축협, ㈜인백팜은 화순군과 함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 550여 가구에 희망과 행복을 잇는 2,000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전달하는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역사회와

이웃에 우리 축산물로 행복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따뜻한 나눔의 정이 지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설렘 가득한 희망의 동행이다”고 말했다. 박서홍 본부장은 “추석을 맞아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함께 나누고, 우리 축산물로 면역력을 회복해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협과 축산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잇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백팜은 백신개발에 필요한 유정란을 생산·공급하는 지역사회 기업으로 이번 나눔행사에 참여해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눴다. /우성진 기자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3중 마이크로 타겟팅으로
한층 한층 탄탄하게**

자음생에센스는 인삼의 생명력을 6,000배* 이상 농축한 진세노믹스™로 피부 한 층 한 층 탄력을 채우고-세우고-당겨 탄탄한 피부를 완성합니다.

* 진귀한 인삼 사포닌 CK 함량 비교

Sulwhasoo